

장애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차이 및 교육 우선순위*

정 소 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육연구사

《 요 약 》

이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이 변인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직업기초능력 하위요인의 교육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 대학의 장애학생 업무 담당자 협조를 통해 장애학생 2,10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장애대학생의 변인별 직업기초능력 차이는 t 검증과 F 검증으로 알아보고, 여러 집단 간 차이는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직업기초능력의 교육 우선순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Z 값을 추정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장애대학생은 대학구분, 장애유형, 전공계열에서 직업기초능력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 우선순위는 대인관계능력이 가장 높았고, 직업윤리, 의사소통능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해 논의와 향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장애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차이, 교육 우선순위,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 S1A5A8021481)

** 교신저자 (nsyoung@knuw.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 변화가 20대와 기타 세대로 양분되는 추세가 심각해지고 있다. 다른 연령 고용률은 상승했으나, 20대는 57.9%로 2000년부터 소폭 낮아지고 있고 취업 준비생의 상당수가 20대일 것으로 추정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다(통계청, 2018). 한국교육개발원(2016)에 따르면, 낮은 고용률을 보이는 20대 상당수는 대졸자에 해당한다.

대학은 전공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졸업 후 환경변화 및 고용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공분야의 핵심역량을 제공해야 함에도(DEST, 2002), 대학 졸업자의 전문성과 적응력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변화에 맞는 인재를 대학교육에서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박수정, 송영수, 2016; 이숙정, 이수정, 2012). 역동하는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학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학 특성화와 더불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교육 개편의 하나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고, 학생이 자신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식과 기술을 상황에 맞게 습득하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박민정, 2008; 이정호, 안선희, 2014).

직업기초능력은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 중요하게 제시되는 학생의 직무능력 중 하나이다. 직업기초능력은 직장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역량의 중요한 키워드로(양중국, 김희수, 김옥희, 2011; 류지은 외, 2016),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능력, 자원관리능력 등을 포함한다. 직업기초능력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전공직무를 학습하는 시기에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정소영, 2018).

대학생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문제기반학습 등 교수학습 적용 연구가 수행되었고(이은화, 2012; 이승희, 2013; 홍광표, 2015), 직업기초능력의 제도화 및 자격화 등 인증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나승일 외, 2012). 직업기초능력은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여 교육되어야 하고(홍아정, 조운성, 박치경, 2015), 이를 위해 학습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허영주, 2016). 최근에는 직업기초능력 연구가 확대되어, 장애전문대학생(양중국 외, 2011; 정소영, 2017; 정소영, 2018), 장애학생(이윤우, 한경근, 2014;

백종남, 김정미, 김삼섭, 2015; 이상로, 정대영, 2016)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선행연구들이 특정 대상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연구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 직업기초능력은 모든 직업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능력이라고 하나, 장애인은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자임을 인정해야 한다. 장애인은 교육과 기술수준 대비 직무적합도, 지식 및 업무 활용도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직무능력 향상과 직무만족에 도움이 되는 직업기초능력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양중국 외, 2011).

장애인은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조기부터 직업생활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은 성인생활을 준비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은 직업교육이 토대가 되고 있다. 일반교육과 공동된 영역에 근거한 교육내용에서 장애학생이 익혀야 할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홍정숙, 2014). 그럼에도 장애학생이 직업생활에 진입하기 직전에 해당하는 대학교육 시기에는 적절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김호진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은 직장에서의 근무환경에 불만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 당사자인 산업체는 장애인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 즉 직업기초능력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장애인에 적합한 직업기초능력이 교육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대학생은 2018년 현재 9,300여명으로 재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교육부, 2018), 취업률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취업 후 중도포기나 이직, 퇴직이 일반학생에 비해 높다(통계청, 2018). 장애대학생은 비장애대학생보다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 글로벌역량, 자원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이 낮고(양중국 외, 2011), 타인과의 다양한 상호교류 부재로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형성 기회가 제한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은 장애학생에게 비장애학생에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직업기초능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으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한다. 대학은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위해 직업기초능력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나, 비장애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영역별 특성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장애학생을 획일적인 대학교육의 틀에 포함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현재의 교육 방향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장애학생이 여러 가지 변인에서 어떤 직업기초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에 많이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 유형에 따른 차이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대학생이 대학 졸업후 직업생활에서 직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이 변인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 직업기초능력 하위요인의 교육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이 재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학생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장애학생 재학이 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 상황에서 대학들이 사회변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대학생의 변인별(성, 대학구분, 장애유형, 전공계열) 직업기초능력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하위요인의 교육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전국 대학 장애학생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전수를 기반으로 약 500 명씩 유층표집하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장애학생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업무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였다. 2명의 연구원은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장애유형, 성별, 지역 등이 최대한 고르게 참여되도록 각 대학 협조자와 소통하였다. 대상자는 연구 참여를 희망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학생이 선정되었고, 총 2,102명이 최종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상자의 배경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1.7%, 여자 48.3%로 나타났다. 대학구분에서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51.5%, 전문대학 재학은 48.5%로 나타났고, 학년에서는 1학년 29.9%, 2학년 28.4%, 3학년 25.3%, 4학년 16.5%로 드러났으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26.9%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 25.0%, 지적장애

24.2%, 청각장애 23.8%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1급 15.5%, 2급 21.0%, 3급 23.5%, 4급 10.6%, 5급 12.2%, 6급 17.3%로 나타났고,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가 47.8%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 18.6%, 자연과학·의학 15.0%, 공학 14.1%, 사범계열 4.5% 순으로 드러났다. 장애대학생의 거주지는 경기인천권이 37.4%로 가장 많았고, 서울, 충청과 경상 순으로 많이 표집되었다.

<표 1> 대상자 배경정보 (N=2,102)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자	1,087	51.7	대학 구분	4년제 대학	1,082	51.5
	여자	1,015	48.3		전문대학	1,020	48.5
학년	1학년	628	29.9	장애 등급	1급	325	15.5
	2학년	596	28.4		2급	442	21.0
	3학년	532	25.3		3급	493	23.5
	4학년	346	16.5		4급	222	10.6
장애 유형	시각장애	526	25.0		5급	256	12.2
	청각장애	501	23.8		6급	364	17.3
	지체장애	566	26.9	거주지	서울	479	22.8
지적장애	509	24.2	경기인천		787	37.4	
전공 계열	인문사회	1,004	47.8		강원	124	5.9
	자연과학·의학	315	15.0		충청	281	13.4
	공학	296	14.1		전라	179	8.5
	예체능	392	18.6		경상	247	11.8
	사범계열	95	4.5		제주	5	0.2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직업기초능력 측정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하는(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10개 요인, 143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은 143 문항을 사용하였으나(양영근, 정원희, 2015; 이진옥, 김진영, 2016; 정소영, 2017; 정소영, 2018),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10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와 석사 연구원 2명이 3회의 내용타당도 분석을 실시하고, 장애학생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중복되고, 이해도가 낮은 문항을

4. 자료처리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IBM SPSS(ver.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각 도구의 요인이 일관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는 문항내적일치도를 산출하여 알아보았다. 장애대학생의 변인별 직업기초능력 차이는 t 검정과 F 검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고,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분산이 동질할 때는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고, 분산이 동질하지 않을 때는 Dunnett의 T3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직업기초능력 하위요인의 교육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요인이 속한 위치의 Z값을 추정하여 Z값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박은송, 2010; 정소영, 2016).

III. 연구 결과

1. 변인별 직업기초능력 차이

1) 성별 직업기초능력 차이

장애대학생의 성별 직업기초능력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장애대학생의 전체 직업기초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과 조직이해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의사소통능력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t=-2.008$),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이 높았다. 조직이해능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t=-2.016$),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이 높았다.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및 직업윤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성별 직업기초능력 차이

구분	M	SD	Levene 등분산		t	
			F	p		
의사소통 능력	남성	3.574	.815	.026	.872	-2.008*
	여성	3.645	.799			
수리능력	남성	3.551	.927	1.160	.282	-1.632
	여성	3.616	.877			

<표 3> 성별 직업기초능력 차이(계속)

구분	M	SD	Levene 등분산		t
			F	p	
문제해결 능력	남성	3.524	15.094	.000	-.616
	여성	3.546			
자기개발 능력	남성	3.556	12.810	.000	-.314
	여성	3.567			
자원관리 능력	남성	3.489	11.890	.001	.028
	여성	3.488			
대인관계 능력	남성	3.777	.168	.682	-.511
	여성	3.795			
정보능력	남성	3.592	10.037	.002	.862
	여성	3.560			
기술능력	남성	3.415	2.838	.092	-.944
	여성	3.450			
조직이해 능력	남성	3.517	4.172	.041	-2.016*
	여성	3.591			
직업윤리	남성	3.687	6.640	.010	-.694
	여성	3.709			
직업기초능력 (전체)	남성	3.569	3.933	.047	-.894
	여성	3.597			

* $p < .05$

2) 대학구분별 직업기초능력 차이

대학구분별 직업기초능력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장애대학생의 전체 직업기초능력은 대학구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11.445$). 하위요인에서는 의사소통능력($t=11.739$), 수리능력($t=11.959$), 문제해결능력($t=11.216$), 자기개발능력($t=7.812$), 자원관리능력($t=9.379$), 대인관계능력($t=12.559$), 정보능력($t=9.155$), 기술능력($t=7.236$), 조직이해능력($t=11.310$), 직업윤리($t=7.800$) 모두가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모든 하위요인에서 4년제 대학 장애학생이 전문대학 학생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표 4> 대학구분별 직업기초능력 차이

구분	M	SD	Levene 등분산		t	
			F	p		
의사소통 능력	4년제 대학	3.803	.774	.020	.886	11.739**
	전문대학	3.402	.792			
수리능력	4년제 대학	3.804	.883	2.800	.094	11.959**
	전문대학	3.347	.865			
문제해결 능력	4년제 대학	3.717	.764	.993	.319	11.216**
	전문대학	3.341	.771			
자기개발 능력	4년제 대학	3.693	.774	.000	.998	7.812**
	전문대학	3.422	.815			
자원관리 능력	4년제 대학	3.650	.803	.371	.543	9.379**
	전문대학	3.317	.824			
대인관계 능력	4년제 대학	3.986	.697	15.387	.000	12.559**
	전문대학	3.573	.803			
정보능력	4년제 대학	3.740	.819	.112	.738	9.155**
	전문대학	3.404	.862			
기술능력	4년제 대학	3.558	.831	3.203	.074	7.236**
	전문대학	3.298	.814			
조직이해 능력	4년제 대학	3.747	.807	.010	.922	11.310**
	전문대학	3.346	.817			
직업윤리	4년제 대학	3.816	.690	6.948	.008	7.800**
	전문대학	3.572	.745			
직업기초능력 (전체)	4년제 대학	3.751	.691	.114	.736	11.445**
	전문대학	3.402	.708			

** p < .01

3) 장애유형별 직업기초능력 차이

장애유형별 직업기초능력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장애유형별 직업기초능력 차이

구분	M	SD	Levene 등분산(p)	F	사후검정	
의사소통 능력	시각장애 (a)	3.758	.821	.002	39.061**	a, c > b, d
	청각장애 (b)	3.435	.721			
	지체장애 (c)	3.811	.764			
	지적장애 (d)	3.398	.836			

<표 5> 장애유형별 직업기초능력 차이(계속)

구분	M	SD	Levene 등분산(<i>p</i>)	<i>F</i>	사후검정	
수리능력	시각장애 (a)	3.744	.968	.000	29.445**	a, c > b, d
	청각장애 (b)	3.478	.797			
	지체장애 (c)	3.755	.852			
	지적장애 (d)	3.326	.916			
문제해결 능력	시각장애 (a)	3.693	.821	.000	31.383**	a, c > b, d
	청각장애 (b)	3.432	.669			
	지체장애 (c)	3.680	.762			
	지적장애 (d)	3.309	.829			
자기개발 능력	시각장애 (a)	3.702	.869	.000	17.459**	a, c > b, d
	청각장애 (b)	3.459	.686			
	지체장애 (c)	3.660	.754			
	지적장애 (d)	3.407	.860			
자원관리 능력	시각장애 (a)	3.610	.868	.000	26.026**	a, c > b, d
	청각장애 (b)	3.368	.650			
	지체장애 (c)	3.661	.798			
	지적장애 (d)	3.291	.919			
대인관계 능력	시각장애 (a)	3.910	.815	.000	25.947**	a, c > b, d
	청각장애 (b)	3.676	.630			
	지체장애 (c)	3.938	.711			
	지적장애 (d)	3.596	.880			
정보능력	시각장애 (a)	3.691	.897	.000	19.635**	a, c > b, d b > d
	청각장애 (b)	3.553	.692			
	지체장애 (c)	3.698	.827			
	지적장애 (d)	3.347	.943			
기술능력	시각장애 (a)	3.486	.893	.000	11.918**	a, c > b, d
	청각장애 (b)	3.350	.679			
	지체장애 (c)	3.571	.839			
	지적장애 (d)	3.302	.870			
조직이해 능력	시각장애 (a)	3.703	.854	.000	32.796**	a, c > b, d
	청각장애 (b)	3.381	.664			
	지체장애 (c)	3.740	.832			
	지적장애 (d)	3.358	.898			
직업윤리	시각장애 (a)	3.805	.758	.000	16.838**	a, c > b, d
	청각장애 (b)	3.558	.615			
	지체장애 (c)	3.803	.689			
	지적장애 (d)	3.608	.802			
직업기초능력 (전체)	시각장애 (a)	3.710	.758	.000	30.560**	a, c > b, d
	청각장애 (b)	3.469	.569			
	지체장애 (c)	3.732	.694			
	지적장애 (d)	3.780	.781			

** *p* < .01

장애유형에 따라 전반적 직업기초능력과 하위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반적 직업기초능력 ($F=30.560$)과 하위요인 즉, 의사소통능력 ($F=22.005$), 수리능력 ($F=20.575$), 문제해결능력 ($F=22.099$), 자기개발능력 ($F=23.020$), 자원관리능력 ($F=23.012$), 대인관계능력 ($F=30.022$), 정보능력 ($F=27.687$), 기술능력 ($F=12.730$), 조직이해능력 ($F=26.058$), 직업윤리 ($F=14.160$)는 모두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전반적 직업기초능력에서 시각장애와 지체장애학생은 청각장애와 지적장애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에서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학생이 청각장애와 지적장애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고, 정보능력에서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학생이 청각장애와 지적장애 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학생은 지적장애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4) 전공계열별 직업기초능력 차이

전공계열별 직업기초능력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전공계열별 직업기초능력 차이

구분		M	SD	Levene 등분산(p)	F	사후검정
의사소통 능력	인문사회(a)	3.643	.824	.001	9.770**	a, b, c, e > d
	자연과학·의학(b)	3.635	.853			
	공학(c)	3.704	.764			
	예체능(d)	3.389	.755			
	사범계열(e)	3.761	.666			
수리능력	인문사회(a)	3.611	.902	.000	12.432**	a, b, c, e > d
	자연과학·의학(b)	3.638	.970			
	공학(c)	3.767	.910			
	예체능(d)	3.316	.845			
	사범계열(e)	3.618	.658			
문제해결 능력	인문사회(a)	3.530	.770	.002	7.801**	a, b, c, e > d a < c
	자연과학·의학(b)	3.563	.864			
	공학(c)	3.701	.778			
	예체능(d)	3.376	.776			
	사범계열(e)	3.628	.714			

<표 6> 전공계열별 직업기초능력 차이(계속)

	구분	M	SD	Levene 등분산(<i>p</i>)	<i>F</i>	사후검정
자기개발 능력	인문사회(a)	3.577	.790	.000	4.961**	a, b, c, e > d
	자연과학·의학(b)	3.593	.865			
	공학(c)	3.642	.870			
	예체능(d)	3.408	.763			
	사범계열(e)	3.670	.637			
자원관리 능력	인문사회(a)	3.544	.798	.000	7.512**	a, b, c, e > d
	자연과학·의학(b)	3.492	.882			
	공학(c)	3.520	.897			
	예체능(d)	3.290	.808			
	사범계열(e)	3.624	.734			
대인관계 능력	인문사회(a)	3.803	.746	.005	11.802**	a, b, c, e > d a, b < e
	자연과학·의학(b)	3.813	.846			
	공학(c)	3.872	.754			
	예체능(d)	3.582	.794			
	사범계열(e)	4.094	.698			
정보능력	인문사회(a)	3.606	.807	.000	15.431**	a, b, c > d a, b, d, e < c
	자연과학·의학(b)	3.594	.906			
	공학(c)	3.817	.905			
	예체능(d)	3.320	.839			
	사범계열(e)	3.517	.868			
기술능력	인문사회(a)	3.427	.828	.000	7.881**	a, b, c > d
	자연과학·의학(b)	3.538	.818			
	공학(c)	3.581	.901			
	예체능(d)	3.266	.761			
	사범계열(e)	3.347	.864			
조직이해 능력	인문사회(a)	3.575	.850	.000	8.354**	a, b, c, e > d a, b < e
	자연과학·의학(b)	3.614	.806			
	공학(c)	3.600	.897			
	예체능(d)	3.354	.787			
	사범계열(e)	3.789	.638			
직업윤리	인문사회(a)	3.701	.727	.004	7.672**	a, b, c, e > d
	자연과학·의학(b)	3.777	.755			
	공학(c)	3.785	.757			
	예체능(d)	3.533	.686			
	사범계열(e)	3.807	.598			
직업기초능력 (전체)	인문사회(a)	3.602	.720	.000	10.531**	a, b, c, e > d
	자연과학·의학(b)	3.626	.761			
	공학(c)	3.699	.745			
	예체능(d)	3.384	.673			
	사범계열(e)	3.686	.532			

** $p < .01$

전공계열에 따라 전반적 직업기초능력과 하위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반적 직업기초능력($F=30.560$)과 하위요인 즉, 의사소통능력($F=9.770$), 수리능력($F=12.432$), 문제해결능력($F=7.801$), 자기개발능력($F=4.961$), 자원관리능력($F=7.512$), 대인관계능력($F=11.802$), 정보능력($F=15.431$), 기술능력($F=7.881$), 조직이해능력($F=8.354$), 직업윤리($F=7.672$)는 모두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전반적 직업기초능력과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직업윤리는 예체능 집단보다 인문사회, 자연과학·의학, 공학, 사범계열 집단이 높은 의사소통능력 평균값을 보였다. 문제해결능력의 경우는 예체능 집단보다 인문사회, 자연과학·의학, 공학, 사범계열 집단이 더 높은 문제해결능력 평균값을 보였고, 공학 집단은 인문사회 집단보다 더 높은 문제해결능력을 보였다. 대인관계능력은 예체능 집단보다 인문사회, 자연과학·의학, 공학, 사범계열 집단이 더 높은 대인관계능력 평균값을 보였고, 또한 사범계열 집단은 인문사회 집단과 자연과학·의학 집단보다 더 높은 대인관계 평균점수로 나타났다. 정보능력은 예체능 집단보다 인문사회, 자연과학·의학, 공학 집단이, 공학집단은 인문사회, 자연과학·의학, 예체능, 사범계열 집단보다 더 높은 정보능력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기술능력은 예체능 집단보다 인문사회, 자연과학·의학, 공학 집단이 더 높은 기술능력 평균점수를 보였다. 조직이해능력에서는 예체능 집단보다 인문사회, 자연과학·의학, 공학, 사범계열 집단이, 사범계열 집단은 인문사회 집단과 예체능 집단 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2. 직업기초능력 교육 우선순위

장애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하위요인의 교육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평균($M=3.582$)에 따른 각 요인이 속한 위치의 Z값을 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직업기초능력 교육 우선순위

구분	M	SD	Z	순위
의사소통능력	3.608	.808	1.628	3
수리능력	3.582	.903	.136	4
문제해결능력	3.535	.790	-2.607	8
자기개발능력	3.561	.805	-1.030	6
자원관리능력	3.489	.830	-5.008	9
대인관계능력	3.786	.778	12.150	1
정보능력	3.577	.857	-.159	5
기술능력	3.432	.833	-8.134	10
조직이해능력	3.553	.836	-1.464	7
직업윤리	3.698	.727	7.439	2

장애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하위요인의 교육 우선순위는 대인관계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M=3.786), 직업윤리(M=3.698), 의사소통능력(M=3.608), 수리능력(M=3.582), 정보능력(M=3.577), 자기개발능력(M=3.561), 조직이해능력(M=3.553), 문제해결능력(M=3.535), 자원관리능력(M=3.489), 기술능력(M=3.432)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이 변인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를 알아보고, 직업기초능력 하위요인의 교육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전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 2,10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장애대학생은 대학구분, 장애유형, 전공계열에 따라 직업기초능력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교육 우선순위는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의 주요 변인과 교육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라 장애대학생의 전반적 직업기초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직업기초능력 필요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정소영, 2018) 것과 맥락이 같은 결과이다. 하위요인 중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조직이해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높았다. 이것은 전문대학 남녀 장애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없는 연구(양종국 외, 2011)와는 다른 결과로, 이 연구는 특정한 지역 대상이 아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이 폭넓게 표집되어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다른 영역의 직업기초능력도 뛰어나지만 리더십과 업무 아이디어 제시 및 목표설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김선희, 권영심, 신지숙, 2012)에서, 이것은 진미석(2007)에 따르면 대인관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 내 협업을 언급하는 조직이해능력으로 설명되고(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능력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은 비장애학생과 달리 의사소통능력과 조직이해능력에서 상관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장애특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조직에서 협업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장애 특성에 적합한 통역이나 보조기기 접근으로 소통과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조직 내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에 문제요인이 줄겠지만, 그러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조직 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과 보조기기 지원이 전제가 되고 직업기초능력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대학생은 직업기초능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평균 차이를 보였다. 시각장애와 지체장애학생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에서 청각장애와 지적장애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정보능력에서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학생이 청각장애와 지적장애학생보다 높았고, 청각장애학생은 지적장애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장애유형별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장애유형별로 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하였다. 성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학생이 인지하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필요도와 직업기초능력평가 수준은 다르다. 정소영(2018)은 장애전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필요도 조사를 통해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학생 순으로 요구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지적장애와 청각장애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이 시각장애와 지체장애학생보다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장애유형보다 지적능력이 낮고, 청력손실에도 불구하고 수어나 보완대체의사소통 접근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해 문해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에 따른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업기초능력평가 단계부터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고려한 기준과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적절한 평가결과에 따라 실시되는 프로그램 운영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접근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본은 지적장애인을 위해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자기개발능력, 의사소통능력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홍정숙, 2014) 있어, 우리대학이 지적장애인 교육에 환류하기 좋은 사례로 보인다. 장애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몇 개 대학만 통역 지원 등 장애 접근을 하고 있지만 평가단계는 비장애학생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기초능력평가 도구 개발을 통해 전국 대학에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장애인은 각자의 강점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무능력 분석과 맞춤형 직업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 개발 및 직종별 적응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김진주, 박재국, 김일수, 2014), 이를 위한 제반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전공계열에 따라 장애대학생은 직업기초능력 모든 하위요인에서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인문사회, 자연과학·의학, 공학, 사범계열 학생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직업윤리에서 예체능 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인문사회, 자연과학·의학, 공학, 사범계열 학생이 예체능 학생보다 평균이 높았고, 공학 전공학생은 인문사회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에서는 사범계열 학생,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의학 전공학생, 공학 및 사범계열 학생, 예체능 학생 순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 정보능력에서는 공학 전공학생, 인문

사회와 자연과학·의학 및 사범계열 학생, 예체능 학생 순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기술능력은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의학 및 공학 전공학생이 예체능 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 조직이해능력은 사범계열 학생,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의학 학생, 공학 학생, 예체능 학생 순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비장애대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특정한 직업기초 하위능력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낸 연구들(백평구, 2013; 홍아정, 조윤성, 박치경, 2015)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장애전문대학생이 직업기초능력 필요도를 인식하는 정도는 전공계열별로 차이가 없었다(정소영, 2018). 전공계열별로 직업기초능력 수준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공분야를 고려한 차별화된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학은 전공분야의 성격과 장애 추세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현재 전공계열이 학생의 진로적성에 적합한지, 발전 가능성과 융합영역의 확장은 어떠한지 등을 분석해서 학생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학생의 전공과 진로에 따라 공부하는 분야의 상대적 효용가치가 달라지므로, 직업기초능력으로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유영국, 2016). 이것은 학생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근거가 된다. 대학에서 직업기초능력 교육은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 장애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영역이 전공계열별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학생 특성 및 학과 전공을 반영해서 필요한 능력이 분석되어야 하고 학생 특성과 전공을 고려한 교육 운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생 특성과 관련해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에 포함한다.

둘째, 장애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직업기초능력은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의사소통, 수리능력, 정보능력, 자기개발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애전문대학생이 의사소통능력과 정보능력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연구(정소영, 2017)와 일치하고, 4년제 대학생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영역에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포함된 연구(이진욱, 김진영, 2016; 홍아정 외, 2015)와 대부분 일치하나, 기업의 신입사원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시간관리능력으로 도출된(윤덕원 외, 2016) 결과와는 달랐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취업 및 직업유지를 위해 의사소통능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황현철, 김영일, 2010)와 지적장애인에게 경청능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연구와 일치하나, 정량자료 해석, 네트워크가 우선순위에서 낮게 도출된 것은 다른 결과이고(백종남 외, 2015), 고용된 지적장애인은 개념이해, 신체능력, 사회성을 높게 응답하고 직업능력을 낮게 응답한 결과(이운우, 한경근, 2014)와는 달랐다. 선행연구들은 장애인에게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도 교육에 우선 필요하다고 도출된 하위능력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인관계능력은 장애대학생에게 가장 먼저 교육되어야 하는 직업기초능력으로

도출되었는데, 장애인의 직업유지 성공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Schalock(2000)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은 고용주가 아닌 동료로(나용기, 김삼섭, 2013; 최선실, 박승희, 2011), 장애인의 일자리 만족도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김진주 외, 2014).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동료와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은 관련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고, 필요한 통역과 보조기기 접근을 강구해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은 장애인의 대인관계와 관계가 깊다. 장애인에게는 업무 갈등에서 대안을 찾아 조정하고 양보와 타협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이진욱, 김진영, 2016), 이것은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으로 가능하다. 대학은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정규교과 안에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장애학생의 적절한 소통기술이 길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대학의 의사소통 강좌는 글쓰기와 말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신희선, 2015). 의사소통능력이 장애학생에게 중요한 교육 우선순위로 도출된 결과에 근거해 대학에서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직업윤리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으로 공동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고, 업무수행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을 포함한다(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장애인의 직업윤리로 공동체윤리와 근로윤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산업체는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통해 체득한 포괄적인 직업윤리 필요를 언급하면서 근로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정소영, 2017). 대학은 장애학생의 취업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강화를 위해 직업윤리를 교육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수리능력과 정보능력은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능력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언급되는 능력이다. 수리능력은 사칙연산, 통계, 확률을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특히 지적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으로 언급된다(백중남 외, 2015). 정보능력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미있는 자료를 찾아 업무수행에 활용하는 것으로, 컴퓨터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기업체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어, 장애대학생은 정보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필요도를 요구하고,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취득을 취업준비의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한다(한국복지대학교, 2016). 이를 위해 대학은 장애학생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정소영, 2017).

자기개발능력은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스스로를 관리하며 개발해나가는 능력으로, 자기인식, 자기관리, 경력개발능력을 포함한다(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장애대학생은 자아인식능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데, 자아인식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생활에서 자신의 요구를 파악해서, 협업성과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이다(정소영, 2017). 또한, 자기결정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능력에 적합한 일을 찾아, 가치있고 생산적인 삶을 통해 정체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기대를 나타낸 것(백종남 외, 2015)이다. 대학은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과 달리 소극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이 자기개발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강구해야 한다(안관수, 2006; 이진옥, 김진영, 2016).

고등교육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운영은 정부와 대학이 주도한다. 영국과 호주는 정부차원에서 직업기초능력 하위요소를 대학교육과정에 통합 편성하고 이수하도록 하고(Flinders University, 2019;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2019), 미국의 Alverno 대학(2019)은 대학이 주도하여 취업 향상을 위해 직업기초능력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Nottingham 대학(2019)은 전체 학과에 공통의 직업기초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공별로 중요한 핵심능력을 구분하여 이수하도록 운영하고, 교수의 역량강화 지원을 포함한다. Flinders 대학(2019)은 졸업능력개발 프로그램(Graduate Skills Development Program)을 제도화 하여 학생의 능력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학생에게는 산업체의 평가, 훈련이 워크숍 형태로 제공된다. 대학과 학생, 산업체가 함께하는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Alverno 대학(2019)은 교양과 전공교육과정에 8개의 직업기초능력을 6단계로 편성하고, 교양과목에는 4단계까지, 5~6단계는 전공별로 해당 학과에 필요한 능력을 운영하며, 교수의 전문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교수전략을 지원한다.

이 연구의 결과와 외국 사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직업기초능력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직업기초능력이 제시되거나 산업인력공단의 직업훈련으로 제시되고 있어,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상황에 적합한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고, 고등교육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학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역량강화를 위해 핵심 직업기초능력을 제시하고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학이 교육과정 개편시 학생 특성과 전공직무를 고려해야 함에도 교수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어(김선희 외, 2012),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 결과에 근거해 장애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접근은 비장애 학생과 다른 기준으로 진단, 평가, 내용을 선정하고(Lewinson & Palmer, 2005), 장애특성과 유형을 고려해 교육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Michaelsen, Knight & Fink, 2009).

이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장애유형 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진단 도구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비장애학생용 도구와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핵심역량평가 문항과 평가척도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핵심역량 진단에서 부터 필요하다면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진단 도구가 구체화되는

것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교수학습 전략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대학 구분, 장애유형, 전공 계열 등에 따른 장애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이 포함되고, 이를 토대로 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장애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변인별로 알아보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할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전수 조사한 최초의 연구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고, 9천명이 넘는 장애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편성되는 근거를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 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NCS 직업기초능력**. www.ncs.go.kr.
- 김선희, 권영심, 신지숙 (2012). 전문대학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증진을 위한 운영 방안 연구. **한국기업경영연구**, 19(2), 57-77.
- 김호진, 전상철, 김언아, 장영석, 류정진 (2010).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나승일, 조정윤, 어수봉, 장현진, 성희진 (2012). 기초직업능력 자격화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1), 131-160.
- 나용기, 김삼섭 (2013). 직장동료가 인식하는 장애인의 직업성공 준거 문항 개발 및 타당화.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3), 149-170.
- 류지은, 임정훈, 윤정신, 정진철 (2016). 국내 직업기초능력 연구동향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3), 53-81.
- 박민정 (2008).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_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6(4), 173-197.
- 박수정, 송영수 (2016). 대학 특성화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9(2), 79-107.
- 박은송 (2010). 중도 지체장애학생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생태학적 목록의 영역화 및 우선순위. 박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 박진주, 박재국, 김일수 (2014). 지체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제**, 15(4), 559-585.
- 백종남, 김정미, 김삼섭 (2015). 발달장애학생 기초직업기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직업기초능력의 도출, 우선순위 및 미래유용성-준비도 매트릭스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4), 125-146.

120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제20권 제2호)

- 백평구 (2013).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과 대학생 개인 변인의 관계 및 특성. **교양교육연구**, 7(3), 349-387.
- 신희선 (2015). 영화 텍스트를 활용한 협상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영화 '네고시에이터'대화 분석을 중심으로. **사고와 표현**, 8(1), 205-249.
- 안관수 (2006). 대학취업경쟁력 강화와 직업진로지도 방안. **경영교육논총**, 43, 173-191.
- 양영근, 정원희 (2015). NCS 직업기초능력과 산업체 교양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양교육과정 개편 연구. **교양교육연구**, 9(2), 35-65.
- 유영국 (2016).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전문대학 기술직업교육: 전문대학 공학계열의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전기전자재료**, 29(1), 34-45.
- 윤덕원, 우혜정, 강봉준, 김운호 (201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 기반의 직군별 요구역량-국내 대기업 A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383-398.
- 양종국, 김희수, 김옥희 (2011). 장애전문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분석에 따른 증진방안 모색-한국재활복지대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4(3), 41-57.
- 이경호, 안선희 (2014). 역량기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과제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1(1), 141-173.
- 이상로, 정대영 (2016).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한 발달장애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상대적 중요도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1(2), 137-159.
- 이숙정, 이수정 (2012).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2), 11-42.
- 이승희 (2013).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적용한 전문대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 사례연구. **직업교육연구**, 32(4), 79-92.
- 이윤우, 한경근 (2014). 지적장애 학생의 기초직업교육 구성요인 및 하위내용 탐색. **장애와 고용**, 24(2), 97-136.
- 이은화 (2012).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모형 개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4(6), 763-780.
- 이진욱, 김진영 (2016). NCS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4년제 대학생들의 요구: IPA를 통한 사례 연구. **직업교육연구**, 35(5), 75-96.
- 정소영 (2016). 중도장애학생의 보완대체의사소통 평가 목록 우선순위. **특수아동교육연구**, 18(2), 149-171.
- 정소영 (2017). 장애대학생과 산업체 관계자의 직업기초능력 필요도 차이 비교. **장애와 고용**, 27(2), 61-87.
- 정소영 (2018). 장애전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필요도 차이 및 영향 요인. **진로교육연구**, 31(2), 113-129.
- 진미석 (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선실, 박승희 (2011). 지원고용된 지적장애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동료근로자 개입 증세의 분석. **장애와 고용**, 21(2), 217-245.
-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www.kosis.kr. 2018.12.31. 검색.
-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교육통계연보.
- 한국복지대학교 (2016).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황현철, 김영일 (2010). 청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방안. **장애와 고용**, 20(4), 119-148.
- 홍광표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문제기반학습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585-619.
- 홍아정, 조운성, 박치경 (2015). 대학생 NCS 직업기초능력 특성 및 유형 탐색. **교육학연구**, 53(2), 389-417.
- 허영주 (2016). NCS 직업기초능력의 교양교육과정 도입 전략 탐색. **교양교육연구**, 10(1), 425-462.
- 홍정숙 (2014). 일본 지적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4), 343-364.
- Alverno College (2019). Unfolding Understandings: A history of the Alverno learning process. <http://lampout1.alverno.edu>.
- DEST (2002). Striving for quality: Learning, teaching and scholarship. www.backingaustaliasfuture.gov.au.
- Flinders University (2019). Curriculum and Teaching Resources. <https://www.flinders.edu.au>.
- Levinson, E. M., & Palmer, E. J. (2005). Prepar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for school-to-work transition and postschool life. *Principal Leadership*, 5(8), 11-15.
- Michaelsen, L. K., Knight, A. B., & Fink, L. D. (2009). 이영민, 전도근 역 (2004). **팀기반 학습**. 서울: 학지사.
- Schalock, R. L. (2000). Three decades of quality of life.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5(2), 116-127.
-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2019). Personal development and performance review. behavioural competency reference guide(2012-2014). www.nottingham.ac.uk.

Differences and Educational Priority in Key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Jeong, So-Yo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differences in the level of key competency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accordance with each variable, and also to understand the educational priority of subfactors of key competency. Through the cooperation of staffs in charge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whole nation, total 2,102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The differences in key competency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each variable were understood through t or F-test while the differences between many groups were understood through post-test. The educational priority of key competency was suggested by calculating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then estimating Z-value.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in accordance with division of college, type of disability, major field, and subfactors of key competency. In the educational priority, the interpersonal competency was the highest, which was followed by vocational ethics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in ord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necessities of discussions of key competency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future researches were suggested.

Key Words :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Key competency, Educational priority,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competency

논문 접수: 2019. 05. 09 심사 시작: 2019. 05. 09 게재 확정: 2019. 06. 10